

# 건물에 가려 태양광 발전량 줄었다면 피해 배상

## 분쟁조정위 "230원 배상"

## 일조 방해 발전량 손실 첫 인정

## 유사한 환경분쟁 잇따를 듯

신축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면서 태양광 발전에서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

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주거지역 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가 입은 발전량 손실에 대해 피해를 인정해 원인제공자가 23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일조 방해로 인한 태양광발전 피해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유사한 환경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분쟁조정위는 예상했다.

서울에서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이 사는 지상 2층 주택 옥상 위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발전용량 15.6kW 규모로 설치하는 데엔 5300만원이 들었다. 이 발전소에서 이듬해 1월부터 월 평균 약 1300kWh의 전력이 생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3월 A씨가 사는 집의 동쪽에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가 시작됐다. 지상 5층인데 A씨가 사는 주택과의 지반 높이 차이를 고려하면 지상 7층 높이에 해당했다. 신축 건물로 인해 A씨의 집 옥상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자 A씨는 지난해 6월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신청을 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신축 이후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은 그림자 발생 전인 2013년, 2014년에 비해 각각 85.8%, 85만원이 감소했다. 분쟁조정위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11월 일사량은 2013~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했다. 일조량은 늘었는데도 A씨의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A의 발전소 전량 생산량



7층 높이 신축 건물이 건너편에 위치한 2층 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집열판을 가린 모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이 다세대주택 신축 전보다 감소한 점,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앞으로도 10%가량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향후의 피해 정도에 대한선 연도별 기상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위원회 결정은 60일 안에 당사자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10대 멸종위기' 백두산호랑이, 중국 동북지방서 포착

최근 중국 동북지방에 야생 백두산호랑이(중국명 동베이호·東北虎)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달 30일 중국 동북망(東北網)에 따르면 최근 하이룽강(黑龍江)성 홍더우산(紅豆杉)자연보호구 내 야산에 설치된 멸종위기 동물 모니터링 카메라에 백두산호랑이 한 마리가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됐다.

화면 오른쪽에서 나타난 호랑이가 낚시 카메라를 발견하고 다가가 냄새를 맡고 유심히 살펴보는 장면이 약 30초에 걸쳐 생

생히 기록됐다.

이 호랑이의 발견으로 2014년 이후 하이룽강성 두만강(牧丹江)시 무링(穆稜)임업구에서 네번째로 호랑이가 확인됐다.

지난 2014년 12월에는 무링임업구 내 허평(和平)삼림구역에서 백두산호랑이가 멧돼지를 잡아먹는 모습이 발견됐다. 당시 호랑이는 몸무게 120kg 이상의 대형 멧돼지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고기를 뜯어먹었다.

임업구 측은 이번에 발견된 호랑이가 2.5~3살 정도의 수컷으로 완전한 성년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영역을 살피던 도중에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임업구는 호랑이 등의 야생동물 생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대에 모니터링용 적외선 카메라 3대를 설치했다.

백두산호랑이는 전 세계적으로 500마리 미만의 개체수를 보여 10대 멸종위기 동물로 꼽힌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 북한 등지에 서식한다. 최근엔 지린(吉林)성 국가급자연보호구 3곳에 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최근 중국 하이룽강성 야산에 설치된 모니터링 카메라에 포착된 백두산 호랑이.

## 영산강환경경, 고교생과

## 수질 분석 체험 행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일 나주 영산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영산강 수질 분석 체험행사를 열었다. <사진> 체험행사는 영산강 구진나루터에서 시료(물)를 채취한 뒤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에서 분석장비를 통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실험 장비를 이용한 분석체험의 기회가 적은 농촌, 도서지역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환경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환경과학 교실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겨울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 농림부, 담양 황금마을 등 10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 추위 속에서 농촌의 겨울 정취와 맛을 느낄 수 있는 '겨울 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10선'을 발표했다.

선정된 10개 마을은 우리 농촌에서 친 환경으로 재배한 새콤달콤한 유기농 딸기·토마토 수확, 참나물·시금치 수확, 딸기쿠키·딸기 떡 만들기 등 다양한 지역별 겨울철 농산물 수확 및 가공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마을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체험마을 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관광, 홍보분야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이다.

전남에서는 담양 황금마을이 리스트에 올랐다.

담양군 수북면에 자리 잡은 황금마을은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는 습지보호구역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가 어우러진 농촌체험마을이다. 겨울철에도 친환경 딸기·방울토마토 수확하기, 썬채소 수확체험, 새끼꼬기 체험, 쫄면공예 체험, 자연생태탐방학습, 민물고기잡기, 연날리기, 손두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다. 인근에 자리 잡은 죽녹원, 소재원, 메타쉐콰이어길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이 밖에도 경기도 양평 모꼬지마을·여울리마을, 강원도 삼척 맹방유채꽃마을, 충남 논산 포전마을, 전북 완주 인덕마을·진안 능길마을, 경남 사천 비봉내마을·남해 해바리마을·하동 북방마을

## 겨울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10선

### ■ 겨울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10선

1	양평 모꼬지마을
2	양평 여울리마을
3	삼척 맹방유채꽃마을
4	논산 포전마을
5	완주 인덕마을
6	진안 능길마을
7	담양 황금마을
8	사천 비봉내마을
9	남해 해바리마을
10	하동 북방마을

등이 농촌 체험휴양마을 10선에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겨울 수확 체험하기 좋은 마을은 초·중·고등학교 자녀와 교육적인 겨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적합하다. 스키장 등 일반적인 겨울 여행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색체험을 꿈꾸는 관광객들에게도 유용한 여행 정보가 될 것이라고 농촌진흥청은 설명했다.

선정마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농촌체험관광 포털 '우리나라좋은마을'([www.welchon.com](http://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환경부, 여우 6마리 소백산에 방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여우 6마리(3쌍)를 지난달 30일 오후 경북 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에 방사했다. <사진> 방사한 여우들은 별도 시설에서 관리하던 중 교미가 확인된 암·수 3쌍이다.

이번 방사 지역은 3년간 방사된 여우의 행동 방식, 서식지 이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소백산 북부 산악이 아닌 남부의 영주 순흥면 일대로 바꿨다.

2~3월에는 교미한 암·수 개체를 순차적으로 추가 방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년 20마리 이상 방사하고 2020년까지 50마리 이상 복원이 목표다. 송동주 국



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은 "여우 복원사업을 통해 백두대간을 포함한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h3>신축 상가원룸 매매</h3> <p>&lt;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gt;</p> <h4>(4층) 신축원룸</h4> <p>(4면 울대리석 시공)</p> <p>1층 (상가 1칸) 2층~3층 (원룸 10개) 4층 (주택)</p> <p>☆ 보 5,000만 - 월 480만 ☆</p> <p><b>매가 6억 7천만</b> (음 1억2천)</p> <p>☆ 원룸 추천 ☆</p> <p>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모아 A,P,T 코너지리) (1층상가, 1개,2개 분할가능) (4층 주택) (2~3층-원룸 6개, 투룸 2개) 보 4천만 월수익 480만 (음 1억5천만) → 매가 6억8천</p> <p>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1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p> <p>③ 용봉지구 원룸 총룸-20개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p>	<h3>1층 상가 매매</h3> <p>&lt;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gt;</p> <h4>첨단 부영1차 A,P,T.건너편</h4> <p>(광산 KT지사 부근)</p> <p>※ 미용실,식당,프렌차이즈 추천</p> <p>(저렴한가격 대비 높은 수익률)</p> <p>(보 - 800만, 월 80만)</p> <p><b>매가 1억5천만</b></p> <p>☆ 수익성 상가 ☆</p> <p>① 전남 곡성 전원주택 (토 80평, 건30평) 입목역, 섬진강 부근 → 매가 4천만</p> <p>②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올리 (음5천) (보천,월60만) → 매가 7억8천만</p> <p>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음5천) (보5백,월45만) → 매가 8천5백</p>	<h3>법률경매</h3> <p>(주)대신경매</p> <p>(특수물건 추천)</p> <p>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룸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홀플러스 남측 근처,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b>최저가 4억4천</b></p> <p>2. 동구 수기동 (토 130평, 건 320평) (1층, 생활시설,창고-2층~3층,소매점-4층~5층,사무실) 감정가 10억 → <b>최저가 4억8천만</b></p> <p>3.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토 44평,건118평) 북구 두암동 우체국 옆, 2차선 도로 접 ☆ 1층 점포, 2층~4층 주택 감정가 3억 5천 → <b>최저가 2억 5천만</b></p> <p>4. 동구 학동 (토 114평, 건 60평) ※학운동 주민센터 북측 인근 약 2미터 도로 접으로 차량 통행가능 감정가 2억6천 → <b>최저가 1억9천</b></p> <p>☆ 직원 구함 ☆</p> <p>경매 컨설팅, 부동산 배우실분 가족처럼 함께 일하십시오 모집 합니다.</p>	<h3>경매교육</h3> <p>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p> <p>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p> <p>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p> <p>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p> <p>(인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p> <p>원스톱 강의</p> <p>① 서구 금호동 (토 63평, 건 111평) (1층~2층, 사무실및 창고) (3층, 주택) 감정가 3억3천 → <b>최저가 2억3천</b></p> <p>수익성 상가 (다가구 원룸)</p> <p>① 서구 풍암동 (토 74평,건131평) 풍암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1층-룸 5개, 2층 - 룸 5개, 3층 - 룸 2개) 감정가 5억2천 → <b>최저가 5억2천</b></p> <p>② 광산구 월계동 (토 86평,건 161평) 한국방송통신대 북서측 인근, 8m도로 접 감정가 5억2천 → <b>최저가 1억8천7백</b></p> <p>③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 174평,건 424평) 총 5층, 10m도로 접, 양동시장 부근 감정가 10억 → <b>최저가 7억6천</b></p> <p>④ 서구 쌍촌동 (토 90평, 건 364평) 1층~5층 총룸 37개, 윤천역 3분거리 감정 12억 → <b>최저가 6억8천</b></p> <p>⑤ 북구 중흥동 (토 81평,건 298평) 총 5층, 중흥초등학교 북서측 인근, 약8m 도로접 감정가 8억2천 → <b>최저가 3억7천</b></p>
010-6670-9800	010-7384-7800	010-6834-4800	010-6832-9700